

# 일제강점기 益山郡儒道會 연구

임 숙 정\*

I. 서론
II. 朝鮮儒道聯合會 각 道 조직 및 업무
III. 益山郡儒道會 분석
1. 益山郡儒道會 회칙 분석
2. 益山郡儒道會 역원 분석
3. 益山郡儒道會 활동 분석
IV. 결론

## 국문초록

일본 제국주의 세력은 일제 강점 초기부터 상류 계층을 통해 교화 정책을 시행하고자 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유림은 일본제국주의 세력의 시책 방향에 따라 그들을 통제하는 방향이 달라졌다. 일본 제국주의 세력은 전시체제기에 원활한 국가통치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하나의 큰 유교단체를 출범시켰으니, 이것이 조선유도연합회이다. 조선유도연합회는 1년 4개월 만에 전국조직이 완성되었다. 유림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전시체제기 일본제국주의 세력의 명령에 얼마나 빠르게 순응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였다. 익산군유도회 연구는 조선유도연합회 지역사례

\* 전주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22blackstar@naver.com



연구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지역사례 연구는 조선유도연합회에 대한 연구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 주제어

---

조선유도연합회, 익산, 지역사례, 익산군유도회, 유림



## I. 서론

일제강점 말 戰時體制期에 돌입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은 식민지 조선에서 원활하게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동원이 이루어지길 원했다. 따라서 일본에서 먼저 시작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조선으로 가져와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이하 정동연맹)이라는 관변 단체를 조직하였다. 총독부는 정동연맹이 ‘국민 정신력을 원천으로 각종 단체에 작용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표명하였다.<sup>1)</sup>

정동연맹은 관 주도로 각종 산하기구를 만들어 조선인들을 전시체제에 수월하게 동원하고자 하였다. 산하기구로는 각 지방 연맹·관공서·학교·회사·종교단체 등이 있었다. 朝鮮儒道聯合會는 이 중 종교단체 소속이었다. 정동연맹은 이후 國民總力朝鮮連盟(-이하 총력연맹)으로 기구가 개편되었다.

일본제국주의 세력은 일제강점 초부터 유교사상과 儒林에 주목하였다.<sup>2)</sup> 일제강점 초에는 經學院을 중심으로 유림들을 포섭해 나갔으며 3·1운동 이후에는 다양한 유교단체를 활용하여 통치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중일전쟁 이후 원활한 통치를 위해 유림 단체의 일원적 통합이 필요하였고 그 결과 조선총독부 주도 아래 조선유도연합회가 발족하게 되었다.<sup>3)</sup>

하지만 조선유도연합회는 유림단체가 아니었다. 실제로 조선유도연합회 가입조건을 보면 “회원은 성년이상의 제국신민으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sup>4)</sup>라 하여 유림이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었다. 조선인들에

1) 『조선총독부관보』, 1939년 4월 19일 <訓示>

2) 조선 안 중류 양반에 유생이란 것은 그 사상계를 지배할 만한 유력한 자들이므로 그런 사회에서 행해지는 유교를 취해 진정 병합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밝힌다면 이른바 방에 들어가 창을 훑치는 것으로 이 만큼 편리한 것은 없을 것 文學博士市村瓚次郎論說, 『日韓併合と精神統一』, 『教育界』 1910년 10월 3일

3) 류미나,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유림정책」, 『역사와현실』 63, 한국역사연구회, 2007. 313쪽.

4) 『경학원 잡지』 1940년 12월 <朝鮮儒道聯合會結成趣意書>



게 익숙한 유림단체에 더 많은 대중을 유입시켜 전시체제에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유도연합회 선행연구로는 정옥재<sup>5)</sup>와 류미나<sup>6)</sup>가 있다. 정옥재는 조선유도연합회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였던 일제강점 말 최대 유림 조직으로 유림뿐 아니라 관료, 지역유지, 근대 지식인도 참여하였다고 말하면서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조선총독부 관변단체라 정의 내렸다.<sup>7)</sup>

류미나는 1930년대 일본사회는 1920년대 말부터 이어진 극심한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국민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러한 이유로 고안해 낸 ‘心田開發運動’은 일본은 물론 조선에도 이식됐으며 후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국민총동원체제’로 확대되었다<sup>8)</sup>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의 유교단체를 통합하는 기구로 조선유도연합회 탄생을 설명하였다.<sup>9)</sup>

이 연구들을 통해 조선유도연합회의 전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명이 되었지만 전국조직이었던 조선유도연합회의 지역 사례 연구는 소략하다. 현재 조선유도연합회 지역 사례연구로는 경기도 利川<sup>10)</sup>과 전라남도 順天<sup>11)</sup>이 있다.

---

5) 정옥재, 「한말일제하 유림연구-일제협력유림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정옥재, 「조선유도연합회의 결성과 皇道儒學」,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3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6) 류미나,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유림정책」, 『역사와 현실』 63, 한국역사연구회, 2007. ; 류미나, 「조선유도연합회의 결성과 활동 및 참여인사들에 대한 기초조사」, 『2007년도 학술연구용역 논문집』 2,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7) 정옥재, 박사학위논문, 151쪽.

8) 류미나, 「조선의 ‘황도유학’ 전개과정과 일본제국주의의 확장」, 『한일관계사 연구』 63, 한일관계사연구, 2019, 236쪽.

9) 류미나,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유림정책」, 『역사와 현실』 63, 한국역사연구회, 2007; 류미나, 「조선유도연합회의 결성과 활동 및 참여인사들에 대한 기초조사」, 『2007년도 학술연구용역 논문집』 2,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10) 김민철·황병주·허홍범, 「식민지 파시즘기(1937-1945) 이천군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역사문제연구』 3, 역사문제연구소, 1999.

11) 임숙정, 「조선유도연합회 순천군지부 회원의 현황과 특징」, 『한국근현대사연구』 73, 한국근현대사학회, 2015.



김민철 외 2인의 연구는 『利川市史』를 편찬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利川郡儒道會結成所感詩集』과 『夫鉢邑 高白里 尹氏家 소장 근대문서』를 중심으로 이천지역에서 일제강점기 지역 유지들에 대해 조망한 연구로 利川郡儒道會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임숙정은 『朝鮮儒道聯合會 順天支部 會員名單』문서를 통해 조선유도연합회 순천군 지부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지부에 어떤 인물들이 참여했는지 인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명망이 있던 이들 중 일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이들이 조선유도연합회에 참여했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순천군 사례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조선유도연합회 지역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실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 유림들의 참여 여부이다. 일제강점기 鄉校는 총독부의 위임을 받은 府尹과 郡守의 관리하에 놓였다. 따라서 일제에 협력하지 않았던 유림들은 점차 향교로부터 배제되었다.<sup>12)</sup> 그렇다면 정옥재가 일제강점 말 최대 유림 조직이라고 평가내린 조선유도연합회에 전통적인 유림들은 참여했는지 지역사례를 통해 알아보아야 한다.

둘째 지역유도연합회 활동 내용이다. 조선유도연합회는 전국조직이다. 따라서 중앙의 명령이 지역에 어떻게 전달되었고 지역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연구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라북도 益山은 지역 사례 연구 주제로 적합하다. 익산 향교는 1934년부터 1944년 사이 각종 공문서를 묶은 『諸關係書類』가 있다. 이 자료는 수신관계가 분명한 왕복문서철로 총 518건의 문서이다. 생산자는 익산군수, 경학원대제학, 익산문묘 직원, 익산 각 군 면장 등 다양하며 수신자 또한 익산문묘직원, 익산 군수, 각 장의, 각 면장 등 다양하다. 내용 또한 익산 유림 명부 뿐 아니라 釋奠祭 관련 내용, 회계 관련 내용 등 다양하여 일제강점 말 향교조직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라 할 수 있다. 또한 益山郡儒道會 관련 내

12) 장순순, 「석전의 상징성과 향교 석전의 식민지적 변용」, 『태동고전연구』 45,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20, 55쪽



용도 존재하여 전통 유림들의 가입 여부를 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익산군유도회 활동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익산 지역을 통해 지역사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보았다.

## II. 朝鮮儒道聯合會 각 道 조직 및 업무

조선총독부는 1939년 10월 16일 京城府民館에서 全鮮儒林大會를 개최하였다. 南次郎 총독은 ‘유림들이 유교사상을 다시금 깨달아 皇國臣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요했다.<sup>13)</sup>

조선총독부는 조선유도연합회를 결성한 후 후 “道 단위로 유도연합회를 빨리 결성하여 중앙과 지방이 호응하여 儒道精神을 부흥하기를 힘쓰라”<sup>14)</sup>하였다. 이에 따라 1년 5개월 만에 전국 13개 도에서 조선유도연합회 도유도연합회가 결성되었다.<sup>15)</sup> 결성날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유도연합회 및 각 도별유도연합회 결성날짜<sup>16)</sup>

조선유도연합회	1939년 10월 16일	평안남도	1939년 12월 14일
충청북도	1939년 11월 14일	함경북도	1939년 12월 20일
전라남도	1939년 11월 16일	함경남도	1939년 12월 22일
경기도	1939년 11월 19일	경상북도	1939년 12월 29일
충청남도	1939년 12월 1일	경상남도	1940년 1월 14일
전라북도	1939년 12월 3일	황해도	1940년 3월 4일
평안북도	1939년 12월 11일	강원도	1941년 3월 12일

도별유도연합회 결성을 보면 강원도만 유독 느리게 만들어졌다. 사실 강원도유도연합회는 1939년 안에 조직 결성을 마칠 예정이었다.<sup>17)</sup> 하

13) 『동아일보』, 「儒道の 本義顯揚 儒林大會와 南總督告辭」, 1939년 10월 17일

14) 『매일신보』, 「儒道聯合會를 組織 ‘精動聯盟’에 加盟, 時局에 徹底 合流 決意」, 1939년 10월 17일

15) 『경학원 잡지』 1940년 12월 <朝鮮儒道聯合會結成趣意書> 16-147쪽.

16) 경학원 잡지 45호와 신문보도를 통해 결성 날짜를 알 수 있다.



지만 실제 조직은 1941년에서야 결성되었다.<sup>18)</sup> 창립이 늦춰진 경우는 강원도뿐만이 아니다. 황해도 또한 1939년 11월 16일에 황해도유도연합회 결성식을 거행할 예정이었다.<sup>19)</sup> 그러나 황해도유도연합회 결성식은 조선유도연합회 사정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sup>20)</sup> 그리고 1940년 3월 4일 결성되었다.

계획에 의하면 황해도와 강원도 모두 1939년 이내에 창립을 마치고자 하였다. 만약 계획대로 되었다면 4개월 안에 전국 13개도 유도연합회가 창립되었을 것이다. 굉장히 빠른 속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3개도 유도연합회 소속으로 府·郡·島 유도회가 있었다. 조선 유도연합회 규칙 4조에 따르면 ‘부·군·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각 부군도 유도회에는 유도회장(府尹, 郡守, 島司로 위촉)을 두라.’<sup>21)</sup> 는 내용이 있다. 부·군·도 유도회에서 그치지 않고 邑·面 유도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읍·면 유도회 존재는 신문기사로 알 수 있다.

고양군유도회 각 면지부 발회식을 좌기와 같이 거행한다고

23일 오전 10시 은평 송인 독도 각면

24일 오전 10시 벽제 지도 중면 각면

25일 오전 10시 신도 원당 송포 각면<sup>22)</sup>

各邑面에는 支部를 設置하여 邑面長을 支部長으로 하고 同事業을 強化하기로 되었다 한다.<sup>23)</sup>

17) 『매일신보』, 「道內 四千儒林 糾合 文教報國을 實踐-儒道聯合會 江原支部를 結成」, 1939년 10월 20일

18) 『조선신문』, 「儒林」의 聯絡統一, 忠孝道義의 念涵養, 江原儒道聯合會結成, 1941년 3월 14일

19) 『매일신보』, 「黃海儒道聯合會 十六日에 結成式舉行」, 1939년 11월 15일

20) 『매일신보』, 「儒道聯合會 黃海서 無期延期」, 1939년 11월 21일

21) 『경학원 잡지』 1940년 12월 「朝鮮儒道聯合會 規則」 17쪽

22) 『매일신보』, 「地方集會-高陽郡 儒道會 支部發會」, 1940년 1월 23일

23) 『매일신보』, 「淸州郡儒道會- 各邑面에 支部」, 1939년 12월 6일



만약 모든 부·군·도와 읍·면까지 조선유도연합회 지부가 있었다고 하면 12개의 부유도회, 220개의 군유도회 2,500개의 읍·면<sup>24)</sup> 유도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하지만 현재 그 존재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다.

조선유도연합회 조직은 總務部·敎化部·敎育部·編纂部·經理部 이렇게 다섯 개의 부서가 있었다.<sup>25)</sup> 그리고 大野綠一郎 정무총감은 1939년 10월 30일 각 도지사에게 정식 通牒을 발송하여 도내유도연합회 사무를 총무부, 교화부, 교육부, 경리부 등으로 나누어 분담하라고 하였다.<sup>26)</sup> 실제 도별유도연합회 조직 구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화부는 12개<sup>27)</sup> 도유도연합회에 모두 있었다. 교화부가 가장 중요한 부서였음을 말해준다. 둘째 총무와 경리 업무는 조직 간의 변동이 있었다. 전북은 庶務部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총무부에서 하던 일을 담당하였다. 총무부와 서무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무부 :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전체적이며 일반적인 사무를 맡는 부서<sup>28)</sup>

서무부 : 여러가지 잡다한 일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sup>29)</sup>

총무부는 기관 전체를 의미하지만 서무부는 하나의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업무는 비슷해 보이지만 기관 전체 일을 하는 것은 총무이고 그 부서 역할을 하는 곳이 서무이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총무의 역할이 아니라 서무의 역할로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도별로 별도 부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음을 알려준다.

셋째 편찬부는 경북과 황해도뿐이었다. 필수로 만들어야 하는 부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직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 내용을

24) 심규영,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복원과 그 지도화 : 《조선십삼도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0쪽.

25) 『조선시보』, 「朝鮮儒道聯合會, 機構は五部門を設置」 1939년 10월 20일자

26) 『매일신보』, 「儒道振興에 拍車 今日 各道知事에게 正式發牒」, 1939년 10월 31일자

27) 현재 경학원 잡지에는 강원도를 제외한 도유도연합회 규칙이 남아 있다.

28)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3판」 『민중서림』, 1994. 3794쪽

29)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3판」 『민중서림』, 1994. 1979쪽.



살펴보면 조직에서 담당하는 사업과 그 사업을 맡고 있는 부서도 달랐다.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 2> 강원도 제의 12개도별유도연합회 조직과 담당 부서 비교<sup>30)</sup>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북	평남	함남	함북
총1	총1	총1	총1	총1	총1	총1	총1	총1		총1	총1
총2	총2	총2	서2	총2		총2	총2	총2		총2	총2
			서3		총3						
총4	총4	총4		총4	총4	총4	총4	총4		총4	총4
	총5										
경6	총6	경6	서6	총6	경6		경6	총6		경6	경6
교7	교7	교7	교7			총7	교7	화7		교7	교7
교8	화8	교8	화8			총8	교8	화8		교8	화8
교9	화9	교9	화9			총9	교9	화9		교9	교9
교10	화10	교10	화10			총10	교10	화10		교10	교10
화11	화11	화11	화11		화11	화11	화11	화11	화11	화11	화11
화12	화12	화12	화12			화12	화12	화12	화12	화12	화12
화13	화13	화13	화13		화13	화13	화13	화13	화13	화13	화13
화14	화14	화14	화14		화14	화14	화14	화14	화14	화14	화14
					화15						
화16			화16		화16	화16	화16		화16	화16	화16
				화17							
					편18						
					편19		편19				
총 20	총 20	총 20	서 20	총 20	총 20	총 20	총 20	총 20	총 20	총 20	총 20
업무1 문서왕복, 업무2 지방연락 업무3 각부연락과아울러통제 업무4 다른부주관에속하지않는사항 업무5 문묘의식전의례 업무6 예산결산회계 업무7 명륜전문학원후원 업무8 서당개선, 업무9 강습소설치 업무10 문맹퇴치에관한사항 업무11 강연및교화에관한강연 업무12 향약장려및지도,											



업무13 효자절부의표창  
업무14 풍속개량  
업무15 생활개선  
업무16 청소년교화및교육에관한사항  
업무17 사회 교육 및 교화,  
업무18 회지 발행,  
업무19 교화용 도서 편찬 및 도서 편찬  
업무20 다른 필요한 사업계획과 함께 실행에 관한 사항

총무부:총 경리부:경 교육부:교 교화부:화 서무부:서 편찬부:편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조선유도연합회에 없는 업무가 도유도연합회에 들어간 사례이다. 문묘의 식전의례 업무가 충북에만 들어갔고 생활개선 업무가 경북에만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 교육 및 교화는 전남에만 있었다.

조선유도연합회가 만들어진다고 각 도별로 규칙이 내려갔을 때 이를 참조하되 조선유도연합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활동 업무가 도별로 정해진 것이라 생각된다. 경북과 전남은 조선유도연합회 상부기구인 정동연맹의 취지에 좀 더 집중하여 별도의 업무를 명시하였다면 충북은 ‘儒道’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문묘의 식전의례 업무를 명기하였다.

이렇게 도별유도연합회 회칙에 따라 조직과 업무가 구성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각 군으로 규칙이 정해져 내려갔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왜냐하면 淸州郡儒道會에서는 총무, 교화 그리고 司禮部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례부는 문묘의 式典 및 儀禮에 관한 사항을 掌理하기로 되어 있었다.<sup>31)</sup>

충북 소속 청주군 유도회에 충북유도연합회의 규칙이 전달되었을 때 청주는 문묘의 식전의례 관련 사항을 총무부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내렸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다른 곳에는 없는 사례부라는 부서가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이 사례를 통해 조선유도연합회 규칙이 도별로

30) 『경학원 잡지』 1940년 12월, 16-147쪽.

31) 『매일신보』, 「淸州郡儒道會- 各邑面에 支部」, 1939년 12월 6일



하달되었고 도별 규칙이 각 부군도 유도회 전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생각한다. 또한 이때 부군도 유도회는 규칙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조선유도연합회는 조직구성 또한 도별-부군도-읍면-으로 하달되었는데 조금씩 변형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 Ⅲ. 益山郡儒道會 분석

#### 1. 益山郡儒道會 회칙 분석

익산은 고려시대 전주의 屬縣 이었다가 1319년 元 順帝의 황후 奇氏의 外鄉이라 하여 益州로 승격되었다. 1413년 익산군으로 명칭이 확정된 후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정책인 府郡面 統廢合에 의하여 礪山面, 咸悅面, 龍安面 등이 편입하였다.<sup>32)</sup> 따라서 일제강점기 익산에는 향교가 익산향교, 여산향교, 함열향교, 용안향교 이렇게 네 개가 존재하였고, 이 네 향교가 소재하는 지역은 金馬面, 여산면, 함열면, 용안면 이었다

일본은 전국의 주요 전통 도시들을 ‘신흥도시’ 및 ‘근대도시’라는 명분으로 식민지 경관의 동일화를 전개했다. 이에 따라 조선의 전통 공간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 목적에 따라 항구·상업·군대·역사 도시라는 특화된 이미지를 획득했다.<sup>33)</sup> 이 중 익산은 일제강점기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변화된 도시이다. 따라서 익산은 근대와 전통이 공존·길항하는 '혼종성(hybridity)'의 도시라 할 수 있다.<sup>34)</sup>

32) 益山市史編纂委員會, 『益山市史』, 『전북인쇄산업협동조합』, 2001, 211쪽.

33) 김경리, 「한국 도시 표상의 역사적 변천과 지속가능성-식민도시 이리와 포항을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42집,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3, 82쪽.

34) 정승진, 「위계적 복합공간으로서의 식민도시, 이리(裡里)」, 『아세아연구』 150,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12, 223쪽.



익산군유도회 창립과 관련된 내용은 앞서 소개한 『諸關係書類』를 통해 남아 있다. 이 문서를 보면 익산군유도회는 1939년 12월 20일 창립하였다. 회칙은 總則, 會員, 役員, 會議, 會計 5장과 부칙으로 존재한다.

총칙은 본회의 이름과 목적 그리고 사무소 위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적은 “황도정신에 基하여 유도의 진흥 및 익산군 유림의 연락통계를 도모” 하는 것이다. 사무소는 익산군청 내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강연 및 강습회 개최, 향약의 장려 및 지도, 풍속의 개량 및 청소년의 교화, 효자 절부의 표창, 명륜전문학원의 후원 및 서당의 개선, 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 이라 기재되어 있다. 향교의 업무와 일체의 전시체제가 통치방향이 뒤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원은 “성년이상의 제국신민으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모집한다고 하였는데 다만 “회원의 입회 및 퇴회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본회 체면을 汚損한 자는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다른 지역 유도회 회칙에서 보이지 않는다. 회장의 권한이 강했음을 알 수 있는 조항이다.

또한 고문과 참여를 둘 수 있었는데 고문과 참여는 회장이 추대했다. 이에 따라 역원 구성이 어찌 되었는지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역원은 모두 명예직이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기재하였다. 역원 중 관공리 직에 있는 자는 그 재직 임기 중으로 한다고 하여 인물 됨됨이 보다는 관리직 여부가 중요했음을 알려준다.

회장은 군수, 당연직으로 임명되었다. 따라서 단체의 성격을 알아보려면 회장보다는 부회장을 살펴봐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유림으로써 학식 명망있는 자”가 부회장으로 역임되었다. 하지만 익산군유도회 회칙을 살펴보면 유림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본회 회원 중 학식명망 있는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다. 역시 회장의 권한이 강했음을 말해준다.

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는데 회장이 필요하다 느낄 때에는 이사회 또



는 평의회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찬성 반대 여부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회계 관련 내용으로는 본회 경비는 향교 재산 기부 및 독지자의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부칙으로는 필요한 세칙은 회장이 정할 수 있고 회칙은 평의회회의 결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회칙의 특징은 첫째 익산군유도회는 회장의 권한이 강했다. 단체의 명예를 더럽히고 손상시킨 회원을 제명할 수 있는 곳은 다른 지역 유도회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내용이다. 회장의 권한이 강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지역은 부회장을 2명 이상 임명하면서 한명을 ‘유림으로써 학식 명망 있는 자’를 임명하고는 했는데 익산은 그렇지 않고 회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유를 생각하면 익산에는 향교가 4곳이었기 때문이다. 유림으로써 학식 명망 있는 자라 하면 아무래도 향교 소속 인물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향교가 4곳인 익산은 이 중 한명을 선출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회장이 지명하는 인물이 부회장으로 임명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유교단체로서 새로운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 만약 이것이 조선유도연합회 익산군지부 회칙이라고 적혀있지 않았다면 새롭게 만들어진 유교단체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향약의 장려 및 지도, 효자 절부의 표창, 명륜전문학원의 후원 및 서당의 개선’ 모두 기존 향교에서 했던 업무이다. 즉 회칙을 보면 익산군유도회는 전시체제가 등장한 최대 유림 단체의 지역별 단체로서의 특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셋째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익산군유도회 회장은 군수이다. 군수는 향교에 대한 재정권을 가지고 있다. 유도회가 만들어졌다면 유도회를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그냥 향교 재산으로 운영한다고 회칙에 적었다. 군수가 익산군유도회 회장으로서 특별한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음을 예산 관련 회칙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살펴보면 유림단체로써 역할도 모색하고 있지만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과 관련 깊음을 보여주는 회칙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회칙에 따라 역원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2. 益山郡儒道會 역원 분석

익산군유도회는 유교 단체를 표방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역원들은 유림이 임명되었어야 한다. 익산군 회칙에 따르면 역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약간, 감사 약간, 평의원 약간, 참사 약간을 두되 고문과 참여를 회장이 추대할 수 있었다. 고문과 참여의 경우는 임명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익산군유도회는 고문과 참여 명단이 남아 있다. 역원 명단을 보면 회장 1명, 부회장 1명, 고문 6명, 이사 2명, 감사 2명, 평의원 22명, 참사 9명, 참여 59명으로 총 102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61명이 일본인이다.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역원 명부는 참여직이다. 참여 59명중 50명이 일본인이다.

참여직에는 22명의 학교장과 16명의 경찰, 그리고 16명의 금융조합 이사, 상공회의소 회장, 은행 지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22명의 학교장 중 일본인은 20명, 경찰 16명 중 일본인은 15명, 나머지 16명 중 일본인은 14명이다. 공무원 임명자들이 참여직에 많이 참가하였고 따라서 일본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른 지역 유도회에서 보이지 않는 역원이 바로 경찰직이다. 역원 명부가 확인 가능한 다른 지역유도연합회에서는 경찰이 이렇게 많이 참가하지 않았다. 앞서 익산은 근대와 전통이 공존·길항하는 '혼종성(hybridity)'의 도시라고 평했다. 그렇기에 아마도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강압적으로 조선총독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요당했다 생각된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보이지 않았던 특징인 경찰이 역원으로 많이 참여한 것이라 추론된다.

참여직 다음으로 많은 수가 보이는 것은 평의원이다. 평의원은 18개의 읍면장과 4명의 문묘직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익산 또한 읍면 단위로



지부가 만들어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18개의 읍면장이 평의원으로 참여하였다. 중요한 것은 문묘직원이다. 익산군유도회는 유림단체를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문묘직원을 평의원으로 참여시켰다. 장의가 아니라 직원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제강점기 총독부는 향교의 재산 수입, 지출관리를 맡을 장의라는 직책을 새롭게 만들었다. 명예직으로 원칙적으로 유림 중에서 선출하며 부윤 또는 군수가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해임할 수 있었다.<sup>35)</sup> 하지만 직원은 달랐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12월 28일 조선총독부령 제 127호에 의해 종래의 ‘향교직원’을 문묘직원으로 직명을 변경시키고 각 문묘에 직원을 1명씩 두었다. 그리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일은 군수 도사의 신청에 의해 도지사가 담당하였다.<sup>36)</sup>

즉 장의는 선출직이고 직원은 임명직이다. 조선유도연합회는 유교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총독부의 정책에 충실히 이행할 사상적 단체를 만들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그렇기에 선출직인 장의가 아니라 임명직인 직원을 유도회 역원 명부에 넣어 행정조직으로 원활하게 유도회를 운영하고자 했다.

이렇게 역원은 개인 면면의 성품보다 그들의 이력이 더 중요했다. 그들의 이력에 따라 당연직으로 익산군유도회에 임명되었다. 그나마 인물 면면이 중요한 역원은 부회장이다. 다른 지역은 부회장이 2명으로 그 중 한 명을 유림으로 임명하라고 회칙에 적었다. 하지만 익산군은 1명이었다.

익산군유도회 부회장은 蘇鎭文이다. 1890년생으로 1939년 당시 나이는 49살이다. 礪山 옛 기록에 따르면 여산을 대표하는 성씨 18개가 나오는 데 그 중 하나인 晉州 소씨 가문이다.<sup>37)</sup> 1939년 익산군유도회 참

35) 이명화, 「朝鮮總督府의 儒敎政策(1910~1920年代)」,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25쪽

36) 류미나, 「식민지권력에의 ‘협력’과 좌절-經學院과 향교 및 문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160쪽

37) 소기영, 「益山郡誌」, 『益山邑誌重刊事務所』, 1932, 42쪽.



여 당시 도회의원이었다.<sup>38)</sup> 이 당시 익산군 출신 도회의원은 소진문 외에 趙海英이 있었다.<sup>39)</sup> 조해영은 도회의원 이력으로 익산군유도회 감사직을 역임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익산군유도회가 창립하기 이전에 익산군에서는 전라북도유도연합회 창립행사에 유림들을 선출하여 보냈다. 전라북도유도연합회는 익산군유도회가 창립하기 이전엔 1939년 12월 10일 창립하였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렇게 익산을 대표하여 선출한 유림들을 익산군유도회 역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諸關係書類』속 유림명부에 있는 이들도 익산군유도회 역원 명부에 이름을 올린 이가 없다. 역원명단을 통해서도 익산군유도회는 유교단체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음이 드러난다.

즉 익산군유도회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부회장을 도회의원인 자로 임명하였고 1939년 당시 익산 출신 도회의원인 조해영을 역원으로 임명한 대신 전라북도유도연합회 창립행사에 선출하여 보낸 유림들은 역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다. 유교단체의 모습보다는 일제의 통치체제에 잘 부합할 수 있는 단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 3. 益山郡儒道會 활동 분석

익산군유도회 활동으로 확인될 수 있는 활동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도별유도연합회 참여 활동이다. 익산군유도회는 전라북도유도연합회 소속이다. 아직 익산군유도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익산문묘직원 蘇鎭德은 전라북도 유림들에게 “道儒林大會대회를 兼하여 全羅北道儒林道聯合會 結成式을 左記日時及場所에서 奉行하게 된 바 文廟에서도 地方代表의 會員이 될 者 十名을 選定”하라는 내용의 통첩을 1939년 11월 29일 발송하였다.<sup>40)</sup> 이후 익산문묘직원이 익산군수 앞으로 보낸 문서를 통해 선

38) 민족문제연구소편, 『친일인명사전 2』, 민연, 2009, 298-299쪽.

39) 『조선일보』, 「道會議員當選者」 1937년 5월 12일

40) 昭和 十四年 『諸關係書類』 「全羅北道儒道聯合會 結成式 參席에 관한 건」



정된 10명의 인원이 보이는데 이들은 주소, 이름, 직업, 연령, 유림인지 여부가 적혀있었다.<sup>41)</sup> 10명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표 3> 전라북도유림대회 참여자로 선출된 10명 명단

주소	씨명	직업	연령	유림여부
왕궁면 평장리	李台應	농업	68	儒林
왕궁면 동촌리	朴炳道	농업	55	儒林
왕궁면 동촌리	蘇華永	농업	46	儒林
금마면 기양리	李秉浩	농업	50	儒林
금마면 기양리	趙仁元	농업	60	儒林
금마면 신용리	洪淳采	농업	40	儒林
춘포면 창평리	李容克	농업	54	儒林
북일면 어양리	丁翼燮	농업	50	儒林
이리 본정	辛得水	약종상	60	儒林
삼기면 오룡리	金鍾任	약종상	35	儒林

그런데 분명 지방의 대표적 회원이 될 10명의 사람을 뽑았다 하였는데 이중 역원 명부에 이름이 오른 자는 아무도 없다. 유림들과 관련된 단체가 결성된다 하여 지역에서 대표적 유림으로 10명을 뽑았지만 이들이 역원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익산군유도회는 유림들의 연합체로써의 성격은 미비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시간이 흘러 1941년 전라북도유도연합회 제 2회 총회가 개최된다. “道儒道聯合會第二會 總會 開催에 關하여 文廟管内 儒林 中에 十八人을 代表者 選定하여 無違出席케 하라는 上司의 通牒”<sup>42)</sup> 이 있기에 대표를 선정하여 보고 한다는 내용이 익산군 향교 문서에 남아 있다.<sup>43)</sup> 18명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41) 昭和 十四年 『諸關係書類』 「儒道진흥에 관한 건」

42) 昭和 十六年 『諸關係書類』 「道儒道聯合會 總會 開催에 관한건」

43) 昭和 十六年 『諸關係書類』 「道儒道聯合會 總會 開催에 관한건」



<표 4> 2회 전라북도유림대회 참여자로 선출된 18명 명단 李容克

주소	씨명	연령	비고	1회 참가자
왕궁면 평장리	李台應	72	나이가 두 살 늘지 않았음	○
왕궁면 동촌리	蘇山華永	48	蘇華永 창씨명	○
왕궁면 동촌리	井本炳道	57	朴炳道 창씨명	○
	尹炳翊		宮山璽植 이름 지워져 있음	
	宋覺相		()城祥永 이름 지워져 있음	
금마면 기양리	茂山仁元	62	趙仁元 창씨명	○
금마면 기양리	李秉浩	52		○
금마면 갈산리	吳相燁	65		
삼기면 오룡리	金鍾任	39	나이가 두살 늘지 않았음	○
팔봉면 팔봉리	有蘇鎭文	50	蘇鎭文의 창씨명	
팔봉면 팔봉리	黃道在	49		
춘포면 창평리	李容克	56		○
이리읍 본정	丁翼燮	52		○
이리읍 본정	辛得水	62		○
이리읍 본정	河在昇	60		
북일면 만석리	朴元末	60		
오산면 영만리	孫樂會	71		
북일면 모인리	鄭熙晩	65		

1회에 참가했던 인물 중 2회에도 참가한 인물은 9명이다. 홍순채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9명이 새롭게 참가했는데 이 중 역원 명부에 이름이 기재된 인물은 부회장인 소진문 뿐이다. 참가자는 有蘇鎭文이라는 창씨명으로 하였다. 2회 참가 인물 18명 중 4명의 인물이 창씨개명을 한 채로 참가하였다. 이번에는 직업란과 유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칸이 사라졌다. 1회 전라북도유림대회 당시에는 유림을 보내려는 노력이라도 했다면 2회는 그런 노력조차 사라진 것이다.

2차 유림대회는 익산군유도회가 창립한 이후이다. 즉 익산군유도회 역원이 이미 선출된 이후이다. 이들을 2차 유림대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 조선유도연합회 자체가 유림들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즈음 지역사회에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익산군유도회 두 번째 활동으로 확인되는 활동은 국어보급 활동이다. 전라북도유도연합회 2회 총회 이후 결의문이 발표되었는데 이 결의문



중 두 번째 내용이 “내선일체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어 보급, 내선풍습 융합, 단결의 강화에 힘쓸 것을 기함”<sup>44)</sup> 이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익산군유도회에는 국어 보급 강화에 힘썼다. 1942년 9월 1일부터 1943년 2월 28일까지 익산군유도회는 익산문묘명륜당에서 국어보급 및 강습회를 열었다. 이때 수강인원은 총 60명이었는데 解得한 사람은 7명, 稍解者는 29명이라고 익산문묘직원 佳城祥永은 익산군유도회 회장에게 보고하였다.<sup>45)</sup> 이에 익산군유도회 회장은 각 문묘직원에게 매년 실시중인 강습회와 관련하여 기록 사항을 20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sup>46)</sup>

국어보급은 전시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다. 전쟁에 나가야하는 조선인들이 기초적인 일본어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산군유도회처럼 유도회에서 국어보급을 위한 활동을 했음은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47)</sup>

44) 昭和 十六年 『諸關係書類』 「道儒道聯合會 總會 開催에 관한건」

45) 昭和 十七年 『諸關係書類』 「國語普及方策ニ關スル件」

46) 昭和 十七年 『諸關係書類』 「國語ノ普及ニ關スル件」

47) 유도회에서 국어 강습회 등을 개최한 신문기사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신문』, 「襄陽儒道會結成, 中等科講習所を設置」 1941년 5월 20일

『매일신문』, 「京畿道서도 呼應 小壯儒林들 愛國運動을 展開」 1942년 6월 27일

『매일신보』, 「各種會合에는 勿論 祝文도 國語로 朗讀 百五十萬儒林國語普及運動」 1942년 6월 30일

『황민일보』, 「一億が國語で開く大東亞→海州儒道會の國語講習會」 1942년 7월 15일

『매일신보』, 「中東版 - 타오르는 國語普及熱」 1942년 7월 18일

『매일신보』, 「敎本九十萬部配付 燎原의 火勢가 큰 全解國語普及運動」 1942년 7월 18일

『매일신보』, 「中東版 - 老人도 國語講習 安城儒林會서」 1942년 7월 29일

『매일신보』, 「儒林團에서도 敎材로 使用」 1942년 8월 3일

『매일신보』, 「國語普及運動(各地)」 1942년 8월 12일

『매일신보』, 「儒林層에 國語講習-黃海道서 三個月間短期로」 1942년 8월 25일

『매일신보』, 「國語講習會」 1942년 10월 4일

『매일신보』, 「永登浦隣保館서 國語講習會 開催」 1943년 2월 23일

『경성일보』, 「儒道會의 國語講習會, 各隣保館で一齊に開始」 1943년 2월 26일

『매일신보』, 「女子國語講習所 儒道會主催로 開講」 1943년 9월 7일

『매일신보』, 「國語講習會」 1943년 10월 4일



익산군유도회 세 번째 활동으로 확인되는 활동은 전시체제 헌납과 관련한 활동이다. 1943년 6월 15일 익산군유도회는 전라북도유도연합회 참석 후 간담 사항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중 6번째 사항이 금속류(쇠쇠로 만든 그릇도 포함) 헌납에 관한 건<sup>48)</sup>이었다. 금속류 헌납 이전에 유림들은 비행기를 헌납하였다.<sup>49)</sup> 익산의 유림들 또한 유림수에 맞게 군용비가 할당되어 1941년 군용비를 납부했어야 했다.<sup>50)</sup>

하지만 이제는 금속류를 납부해야 했고 유림들이 납부할 금속류는 제기였다. 제기를 헌납하고 난 후 제사를 무엇으로 지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유림들이 제사에 꼭 필요한 제기를 헌납하게 지시할 정도로 전시체제 말 일본의 전시상황은 좋지 않았고 그럴수록 더욱 강력하게 사상적 단체를 옥죄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익산군유도회도 이런 시정 정책에 발맞춘 모습들을 보였다.

이 모든 활동들이 문묘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익산군유도회 회장인 익산군 군수가 군수 이름이 아닌 유도회장이름으로 문묘직원에게 명하면 문묘직원은 이를 실천해 읊졌다. 다시 말해 조선유도연합회 소속 지역유도연합회는 기존에 있던 향교조직을 활용하여 이름만 새롭게 만든 단체이지 유림들을 규합하기 위한 단체도 아니었고 전시체제가 원활한 행정 체계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였을 뿐이었다.

48) 昭和 十八年 『諸關係書類』 「儒道大會ニ於ケル懇談事項」

49) 오후 1시부터 계속하여 군용기 헌납과 명륜전문학원 승격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신 중심의 한결과 만장일치로 이를 결의하였다. 비행기 헌납문제는 황도유학을 확립하여 회생봉고해나갈 유림들이 일만 민중에게 술선하여 모범을 보이고자 힘써 절약하여 돈을 모아가지고 군용 비행기를 헌납하기로 되었다. 『매일신보』, 「軍用機獻納-明倫學院昇格實現」 1943년10월 17일

50) 각 읍면별 유림수는 이리읍 14, 오산면 6, 북일면 10, 황등면 87, 함라면 27, 웅포면 27, 성당면 33, 용안면 96, 함열면 41, 낭산면 43, 망성면 48, 황화면 30, 여산면 61, 금마면 69, 왕궁면 97, 춘포면 62, 팔봉면 22, 삼기면 9 이라 기재되었고 유림 1명당 1엔씩 납부하여 782엔을 납부하라 하였다. 昭和 十六年 『諸關係書類』 「軍用機具獻納ニ關スル件」



## IV. 결론

조선유도연합회는 정동연맹 소속 종교단체로 정동연맹이 총력연맹으로 바뀌면서 해방될 때까지 존재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전시체제가 일본제국주의 세력의 통치 방향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전국조직임에도 지역사례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선유도연합회 지역사례 연구를 위해 익산군을 연구주제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익산군유도회를 조사하기 위하여 익산군 향교 소속 문서를 활용하였고 이를 회칙, 역원, 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회칙분석결과 다른 지역유도회보다 회장의 권한이 강했으며 부회장을 유림으로 임명하여 유도단체로 보이게 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회칙에서 보이는 유교단체로서의 특징은 기존 향교에서 했던 업무로 전시체제가 등장한 최대 유림단체의 지역별 특징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역원 분석을 통해서도 공무원 임명자가 많은 것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많이 임명된 특징을 보였고 유림보다는 일제 통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들이 명단에 많이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활동 역시 유림단체로서의 활동보다는 제국주의 통치 체제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였음을 기술하였다. 이는 모두 문묘를 통해서 명령이 이행되었는데 이는 조선유도연합회가 유림들을 규합하기 위한 단체라기보다 전시체제가 원활한 행정체계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였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다른 지역사례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 이 논문은 2024년 07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8월 27일부터 09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9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경학원 잡지』

『教育界』

『동아일보』

『매일신보』

『諸關係書類』

『조선시보』

『조선신문』

『조선일보』

『조선총독부관보』

『황민일보』

소기영, 「益山郡誌」, 『益山邑誌重刊事務所』, 1932.

민족문제연구소편, 『친일인명사전 2』, 민연, 2009.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3판」, 『민중서림』, 1994.

益山市史編纂委員會, 「益山市史」, 『전북인쇄산업협동조합』, 2001.

김경리, 「한국 도시 표상의 역사적 변천과 지속가능성-식민도시 이리와 포항을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42집,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3, 81~113쪽.

김민철·황병주·허홍범, 「식민지 파시즘기(1937-1945) 이천군 관련자료에 대하여」, 『역사문제연구』 3, 역사문제연구소, 1999, 235~252쪽.

류미나, 「식민지권력에의 ‘협력’과 좌절-經學院과 향교 및 문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157~191쪽.

류미나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유림정책」, 『역사와현실』 63, 한국역사연구회, 2007, 309~341쪽.

류미나, 「조선유도연합회의 결성과 활동 및 참여인사들에 대한 기초조사」, 『2007년도 학술연구용역 논문집』 2,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류미나, 「조선의 ‘황도유학’ 전개과정과 일본제국주의의 확장」, 『한일관계사 연구』 63, 한일관계사연구, 2019, 227~261쪽.

심규영,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복원과 그 지도화 : 《조선십삼도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명화, 「朝鮮總督府의 儒敎政策(1910~1920年代)」,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87~122쪽.
- 임숙정, 「조선유도연합회 순천군지부 회원의 현황과 특징」, 『한국근현대사연구』 73, 한국근현대사학회, 2015, 153~182쪽.
- 장순준, 「석전의 상징성과 향교 석전의 식민지적 변용」, 『태동고전연구』 45,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20, 45~75쪽.
- 정승진, 「위계적 복합공간으로서의 식민도시, 이리(裡里)」, 『아세아연구』 150,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12, 198~228쪽.
- 정옥재, 「조선유도연합회의 결성과 皇道儒學」,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3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27~264쪽.
- 정옥재, 「한말일제하 유림연구-일제협력유림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Abstract

## Research on the Iksan County Confucian Socie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Lim, Sook-jeong

From the beginning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Japanese imperialist power attempted to implement a policy of reform through the upper class. Therefore, the direction of Confucian schola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hanged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the policies of the Japanese imperialist power. The Japanese imperialist powers launched a large Confucian organization to establish a smooth direction for national governance during the wartime period, and this was the Joseon Federation of Confucianism. Joseon Federation of Confucianism was The National Federation was completed in one year and four months.

Iksan Federation of Confucianism is affiliated with the Jeollabuk-do Judo Federation and was organized almost simultaneously with the Jeollabuk-do Judo Federation. It did not matter whether one was a Confucian scholar or not. During the wartime period, it was more important to be able to quickly comply with the orders of the Japanese imperialist power. The Iksan Federation of Confucianism study was conducted as a regional case study of the Joseon Federation of Confucianism. Various regional case studies will enrich the research on the Joseon Federation of Confucianism

**keywords :**

Joseon Federation of Confucianism, Iksan, Local case, Iksan Federation of Confucianism, Confucian scholars